

서울대학교 역사
사진집

SNU HISTORY
IN PHOTOS

서울대 사람들
1946-2016

발행 서울대학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www.snu.ac.kr

제작 서울대학교 홍보팀
Tel. +82-2-880-2555
E-mail. chloe@snu.ac.kr

자문 서울대학교 기록관 관장 김태웅 교수
서울대학교 70년사 편찬실 수석편집위원 정송교 박사
Travis L. Smith 교수 아시아언어문명학부

사진제공 서울대학교 기록관 <http://archives.snu.ac.kr>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http://www.snunews.com>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http://photo.snu.ac.kr>
서울대학교 홍보팀 <http://photosnu.snu.ac.kr>
국가기록원 <http://www.archives.go.kr>
경향신문 <http://khanarchive.khan.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archives.kdemo.or.kr>
연합뉴스 <http://www.hellophoto.kr>

Publish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1 Gwanak-ro, Gwanak-gu, Seoul 08826
www.snu.ac.kr

Edit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 Public Relations Team
Tel. +82-2-880-2555
E-mail. chloe@snu.ac.kr

Advised by: SNU Archives
70 Years of SNU History Publication Team
Professor Travis L. Smith

Photographs courtesy of: SNU Archives <http://archives.snu.ac.kr>
SNU Newspaper <http://www.snunews.com>
SNU Library <http://photo.snu.ac.kr>
SNU Public Relations Team <http://photosnu.snu.ac.kr>
National Archives of Korea <http://www.archives.go.kr>
KyungHyang Shinmun <http://khanarchive.khan.kr>
Korea Democracy Foundation <http://archives.kdemo.or.kr>
Yonhap News <http://www.hellophoto.kr>

서울대학교 역사
사진집

SNU HISTORY
IN PHOTOS

서울대 사람들 1946-2016

일러두기

- 이 책은 2018년 전기 학위수여식 대상자들을 축하하기 위해 제작한 도록입니다.
- 초본은 서울대학교 70주년을 기념하여 2017년 1월 발간하였습니다.
- 사진에 대한 모든 저작권은 적법하게 취득되었습니다.
- 출처를 별도로 밝히지 않은 사진은 서울대학교 학내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 사진에 등장한 인물 중 연락이 가능한 분들에 한해 초상권을 확보하였습니다.

© 2018 서울대학교

이 도록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에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글의 무단게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항공사진
An aerial view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Gwanak
campus

Part 1

공간

Campus

1 초창기 캠퍼스

Early Campuses (Before 1975)
10

- 개교 당시 캠퍼스들
Early campuses
12

2 관악시대

Relocation (After 1975)

- 관악 캠퍼스 기공식
Groundbreaking ceremony for Gwanak campus
24
- 종합 캠퍼스 부지 선정
Campus site selection
26
- 관악 캠퍼스 건설
New campus construction
28
- 최초의 관악 캠퍼스
First design of Gwanak campus
30
- 관악 캠퍼스와의 첫 만남
First day at Gwanak
32
- 도서관
University Library
42
- 새 교문을 짓다
Main Gate
44

Part 2

운영

Administration

1 설립

Establishment

- 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Ordinance to establish Seoul National University
48
- 미네소타 프로젝트
Minnesota Project
50

2 입시

Admissions

- 대학 입학시험
Entrance examinations
52
- 대학의 팽창
Expansion of the University
56

Part 3

학생

Students

1 대학문화

Youth Culture
60

- 교복
University uniform
64

- 동숭동 시절
Youth culture in the early days
66

- 70년대 대학문화
Campus culture in the 1970s
68

- 80년대 대학문화
Counterculture in the 1980s
70

2 학생운동

Student Movement

- 서울대학교 학생운동 1946-
Student movements since 1946
72

- 광주와 학생운동
Gwangju Uprising and SNU
74

- 4.19를 기억하다
Remembering the April 19 Revolution
76

- 박종철과 학생운동
Martyr PARK Jong-cheol
78

Part 4

빛나는 이름

With Honor and Gratitude

- 합격의 영광
Honor of acceptance
82

- 졸업의 영광
Honor of graduation
84

- 떠나며
Leaving SNU
86

- 대통령과 서울대
Korean presidents and SNU
88

- 명예박사
Honorary doctorates
90

- 개교기념식
Celebrating the anniversaries
92

- 선배의 이름으로
For future generations
94

- 우리들의 청춘
Congratulations to the class of 2018
96

- 연표
Chronology
98

공간

Campus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established by merging ten academic institutions, each with its own governance system and student culture, which had been located on eight different campuses spread throughout Seoul and Suwon.

In 1975, 30 years after its establishment, the university marked the biggest change in its history. The eight campuses were merged into three: Gwanak main campus, Yeongeon medical campus, and Suwon agricultural campus.

In 2014, nearly four decades after the relocation, the university built a new green-bio research campus in PyeongChang. It is now building a 'Smart Campus' in Siheung.

1 초창기 캠퍼스

Early Campuses
(Before 1975)

- 개교 당시 캠퍼스들
Early campuses

2 관악시대

Relocation (After 1975)

- 관악 캠퍼스 기공식
Groundbreaking ceremony for Gwanak campus
- 종합 캠퍼스 부지 선정
Campus site selection
- 관악 캠퍼스 건설
New campus construction
- 최초의 관악 캠퍼스
First design of Gwanak campus
- 관악 캠퍼스와의 첫 만남
First day at Gwanak
- 도서관
University Library
- 새 교문을 짓다
Main Gate

70년대초 동송동 캠퍼스 문리과대학 정문
The main gate of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in the early 1970s



개교 당시 캠퍼스들

EARLY CAMPUSES

서울대학교 설립 당시 캠퍼스를 표기하였으며, '구'는 설립 이전을 말한다.

남산동
 • 예술대학 음악부
 • 구 조선신궁
 • 현 남산공원

Namsan-dong
 • College of Music
 (Formerly Shinto Shrine, currently Namsan Park)

을지로
 • 사범대학
 • 구 경성사범학교
 • 현 주한미군 공병대와 훈련원 공원

Euljiro
 • College of Education
 (Formerly Seoul Normal College, currently the US Military Park)

소공동
 • 치과대학
 • 구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Sogong-dong
 • College of Dentistry
 (Formerly Seoul Dental College)

등송동
 • 문리대학 문학부
 예술대학 미술학부
 • 구 경성대학 법문학부
 경성고등공업학교 경선광산전문학교
 • 현 예술가의 집
 방송통신대학

Dongsung-dong
 •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Liberal Arts division)
 • College of Fine Arts
 (Formerly Seoul University College of Law and Seoul Technical College, Seoul Mining School, currently Artist House and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종암동
 • 상과대학

Jongam-dong
 • College of Commerce

청량리
 • 법과대학
 • 구 경성법학전문학교

Cheongnyangni
 • College of Law
 (Formerly Seoul Law College)

청량리
 • 문리과대학 이학부
 • 구 경성대학 예과

Cheongnyangni
 •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Sciences Division)
 (Formerly Seoul University)

공릉동
 • 공과대학
 • 구 경성대학 이공학부
 • 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Gongneung-dong
 • College of Engineering
 (Formerly Seoul University, currently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연건동
 • 의과대학
 • 구 경성대학 의과대학
 • 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Yeongeon-dong
 • College of Medicine
 (Formerly Seou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currently SNU College of Medicine)

소격동
 • 의과대학 제2병원
 • 구 경성의학전문대학 및 부속병원
 • 현 국립현대미술관

Sogyekdong
 • SNU Hospital II
 (Formerly Seoul Medical College and its affiliated hospital, currently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용두동
 •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 구 경성여자사범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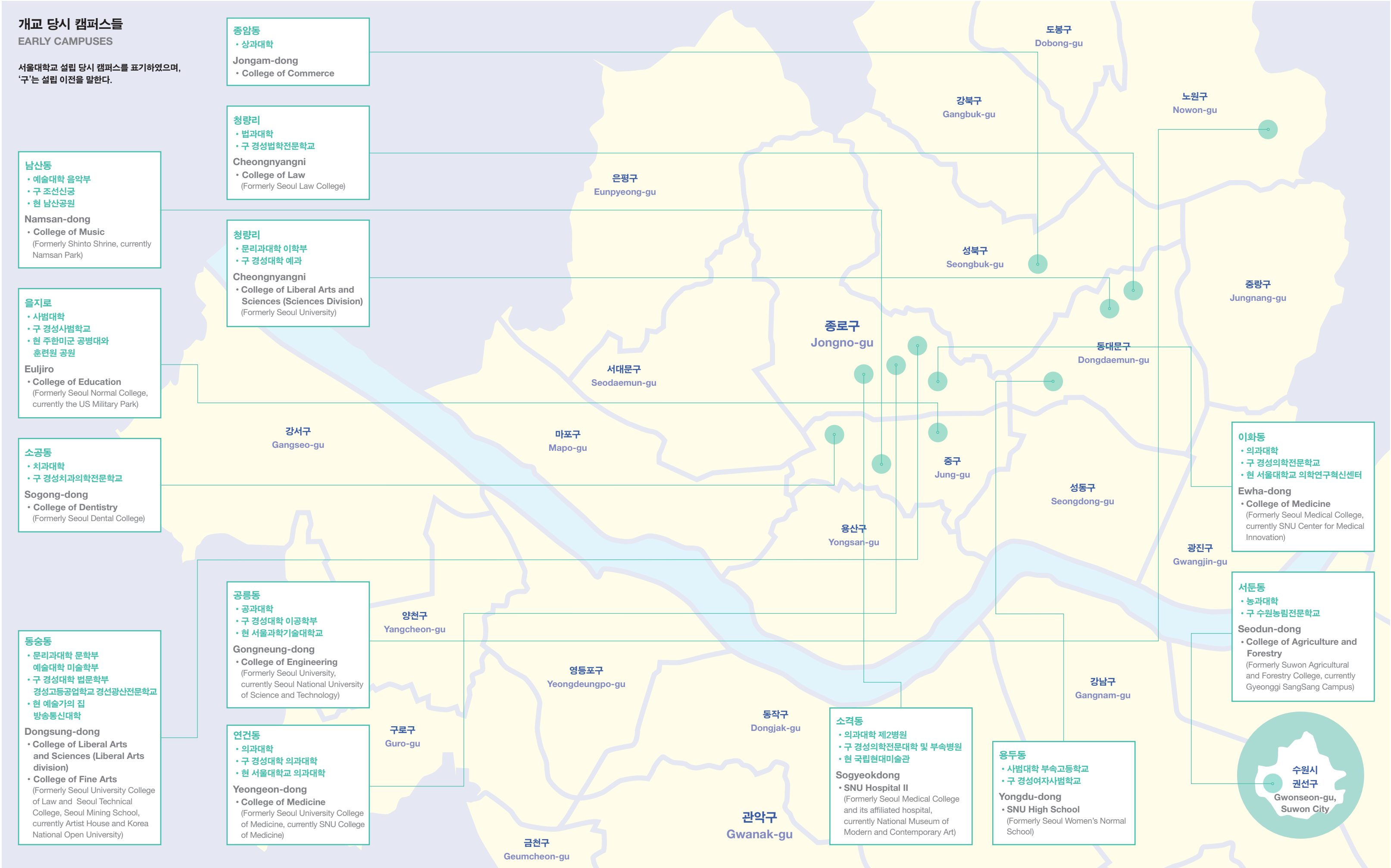
Yongdu-dong
 • SNU High School
 (Formerly Seoul Women's Normal School)

이화동
 • 의과대학
 • 구 경성의학전문학교
 • 현 서울대학교 의학연구혁신센터

Ewha-dong
 • College of Medicine
 (Formerly Seoul Medical College, currently SNU Center for Medical Innovation)

서둔동
 • 농과대학
 • 구 수원농림전문학교

Seodun-dong
 • College of Agriculture and Forestry
 (Formerly Suwon Agricultural and Forestry College, currently Gyeonggi SangSang Campus)



1960년대

동송동 캠퍼스 전경

경성대학 법문학부가 위치하였던 동송동 캠퍼스는 이후 서울대학교의 메인 캠퍼스 역할을 하게 되었다. 서울대학교 창립 당시 동송동 캠퍼스에는 대학본부를 비롯하여 문리과대학과 법과대학, 예술대학 미술부 등이 자리하였다. 경성대학의 법문학부 문과 계통과 이공학부 이과 계통의 통합 개편으로 이루어진 문리과대학은 문학부와 이학부로 편제되었는데, 문학부는 동송동 31번지 동송동 캠퍼스 문리과대학 구내에 있었고, 이학부는 청량리 163번지 옛 경성대학 예과 건물에 있었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Old campus in Dongsung-dong

In the early days, the main campu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in Dongsung-dong where the Keijo Imperial University had its campus before Korea's liberation. The campus had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College of Law and the Administration Building. The College of Liberal Arts was labeled the 'College of Colleges' at the time, but later divided into Colleges of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Natural Sciences in 1975 when relocated to Gwanak.

- 60 Years of SNU History



- 경향신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1965

대학로 '세느 강'과 '미라보 다리'

언제부터인지 확실치 않지만 학생들은 꽤 오래 전부터 대학본부 및 문리과대학 앞의 대학천을 '세느 강'이라 부르고, 그 위 다리를 '미라보 다리'라 불렀다. 맨 처음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한날 콘크리트 다리에 지나지 않는 다리를 '미라보 다리'라고 즐겨 부른 것은 대학인만이 가지는 독특한 낭만 기질이었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Seine River' and 'Pont Mirabeau' at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Students used to jokingly but commonly called a bridge and a stream in Dongsung-dong campus as *Seine River* and *Pont Mirabeau*. Not knowing who named them first, we can only guess that SNU students in the 60s and the 70s were quite romantically inclined.

- 60 Years of SNU History

인문계와 자연계를 합친 거라고 볼 수 있는 문리대는 지금의 마로니에 공원에 있었다. 문리대 앞으로는 성북동에서 흘러내려오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었고, 그 시냇물을 향해 흐드러지게 만개한 개나리가 이화동까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다. 문리대 앞은 시냇물이 해자처럼 찾길과 캠퍼스를 차단하고 있어서 돌다리를 건너야 정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다. 나는 대학 병원에서 의대를 거쳐 문리대에 이르는 봄날의 싱그러운 숲길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 소설가 박완서(문리과대학 50년 입학)



1947
서울대병원 '시계탑 건물'
 1908년 대한제국 황제의 지시로 건립된 '대한의원' 건물 (별칭 '시계탑 건물')은 일제시대에는 조선총독부의원이었다가, 경성제국 부속병원이 되었고, 해방 후 서울대병원 부속병원 본관으로 사용되었다. 1978년 병원 본관이 세워진 후에는 의학박물관으로 바뀌었다. 궁핍했던 시절 "시계탑 앞에만 가도 병이 낫는다" 낭설의 주인공이기도 했던 이 건물의 역사적 가치를 기리기 위해 2014년 탑 안의 시계를 최초 설치 당시의 기계식으로 복원시켰다.

SNU Hospital's Main Building with Clock Tower

Constructed in 1908 during the Great Han Empire (1897-1910), this was the first modern hospital building in Korea. At the time it was said that one could be cured merely by walking beneath its iconic clock tower. After the Japanese annexation of Korea, the building became the Japanese Viceroyalty Hospital and later part of Keijo Imperial University. It is now the Medical History Museum, after the construction of a new main building in 1978.

1945년 8월 15일 의사들은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며 시계탑 앞으로 뛰어갔다. 이때 일제시대부터 수위를 보던 노인이 소리를 지르며 탑을 가르쳤고 누군가 계단을 타고 올라가 시계탑 아래 4면의 일장기를 닦아냈다. 그 순간 거기서 태극 문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인들이 감춰놓았던 태극 문양을 해방과 동시에 되찾은 것이다.

- '꿈, 일상, 추억_서울대학교 병원 130년을 담다', 서울대학교병원사 편찬위원회

서울대학교 역사 사진집

1962

문리과대학 시계탑

마로니에, 4.19탑과 함께 서울대 3대 명물로 전해지는 문리대 시계탑은 반도호텔 앞에 있던 것을 1968년 라이온즈 서울 남산클럽이 호텔 철거시에 인수해 서울대에 기증한 것이다. 시계 아래에는 Seoul Namsan이라고 써 있었다. 종합화 당시 주택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3년의 소송 끝에 1977년 되찾았지만 끝내 관악으로 옮겨지지는 못했다. (대학신문 기사, 1971. 1. 22.)

Clock Tower

The most important landmarks of the old campus were the marronnier trees, the Tower of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Clock Tower. The university fought a lengthy court battle to retain the clock tower when it was taken over by the city government during the relocation process.

- Daehak Shinmun, Jan. 22, 1977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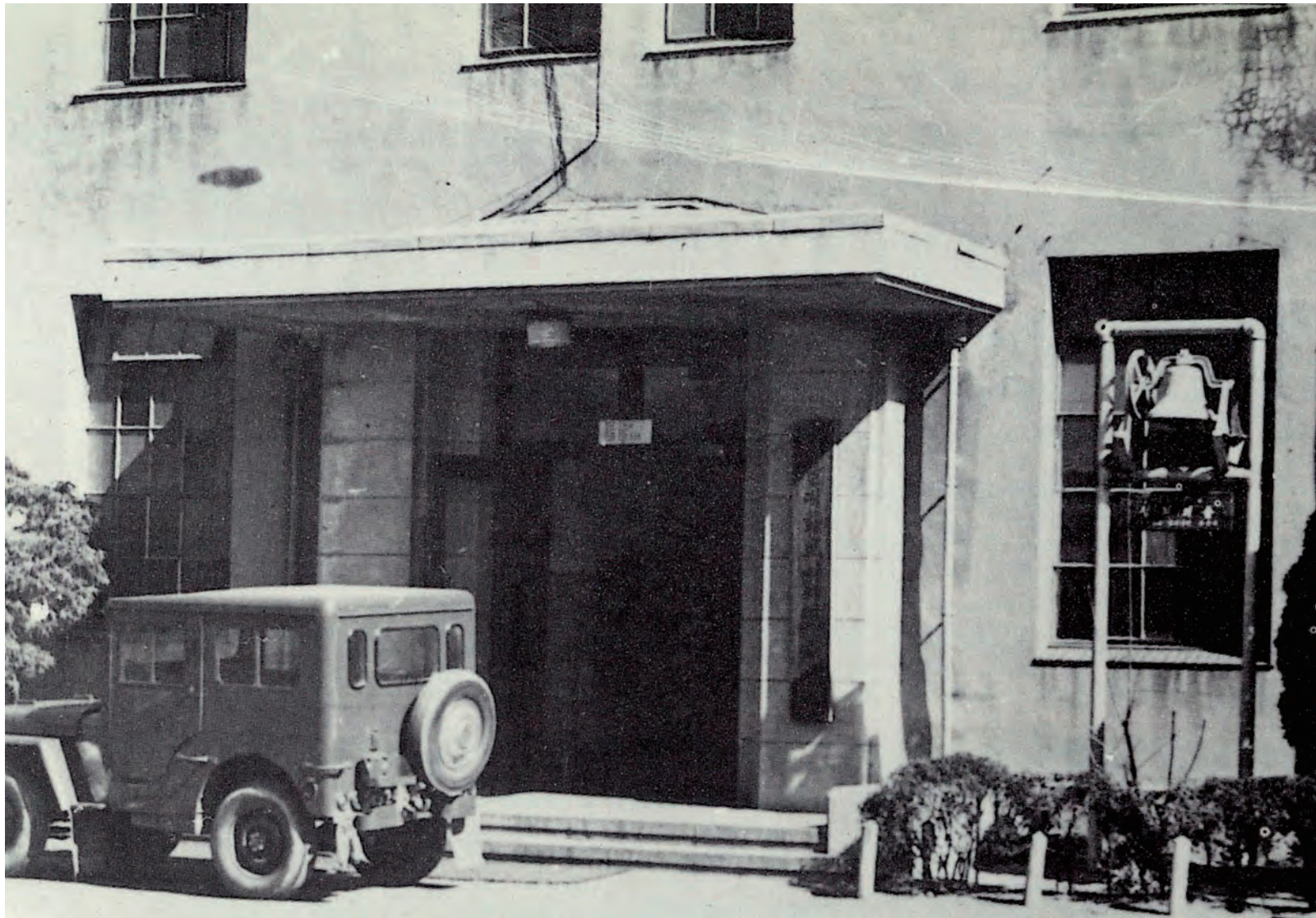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역사 사진집

19

SNU HISTORY IN PHOTOS



1950년대와 2010년의 연건캠퍼스
Yeongeon campus
in the late 1950s and in 2010.



옛 법과대학 건물과 정의의 종
 동송동 캠퍼스의 법과대학 본관 정문 왼쪽으로는 낮고 작지만 역사를 응시하는 자세로 의연히 서 있는 '정의의 종'을 볼 수 있었다. 1956년 10월 20일, 개교 10주년을 기념하여 동창회에서 기증한 이 종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는 법학도들에게 부단한 각성을 촉구하는 경종인 동시에 온갖 학내외 비리에 대한 망루였다. 4·19 혁명 당일 아침, 이 종은 성난 포효로 젊은이들의 피를 끓였고 그날 민주 제전에 목숨을 바친 박동훈의 장례식에는 애 끓는 조종(吹次)이 되기도 하였다.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후 이 종은 자취를 감췄다가 1980년 봄에 법과대학 건물 앞에 다시 설치되었으나 곧 철거되었다가 지금은 법과대학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College of Law building and 'Bell of Justice'

The 'Bell of Justice' hung in the entrance of the College of Law was humble but meaningful. Donated by alumni in 1956 in commemoration of SNU's 10th anniversary, the bell had been the symbol of justice and democracy. Students rang the bell on the morning of April 19, 1960 to announce the beginning of the revolution.

- 60 Years of SNU History

서울대학교 역사 사진집

불암산 밑 공대 캠퍼스는 우뚝 솟은 시계탑에 중정이 있는 당당한 건물이었다. 전쟁 중 미군이 병원으로 사용하여서, 중앙집중식 스팀난방이 가동되었고 입식 수세식 화장실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파워플랜트가 기숙사로 쓰였고, 식당은 콘센트의 가건물이었다. 그렇더라도 모두의 자부심은 대단했다. 서울대 공동의 교표가 있는데도 공대라는 글자가 잘 드러나지 않아 커다란 S工大가 멋없이 새겨진 교표를 너나없이 자랑스럽게 달고 다녔다. 여름철 셔츠에도 어김없이 옮겨달았다.

- 조창한 동문 (건축학과 55학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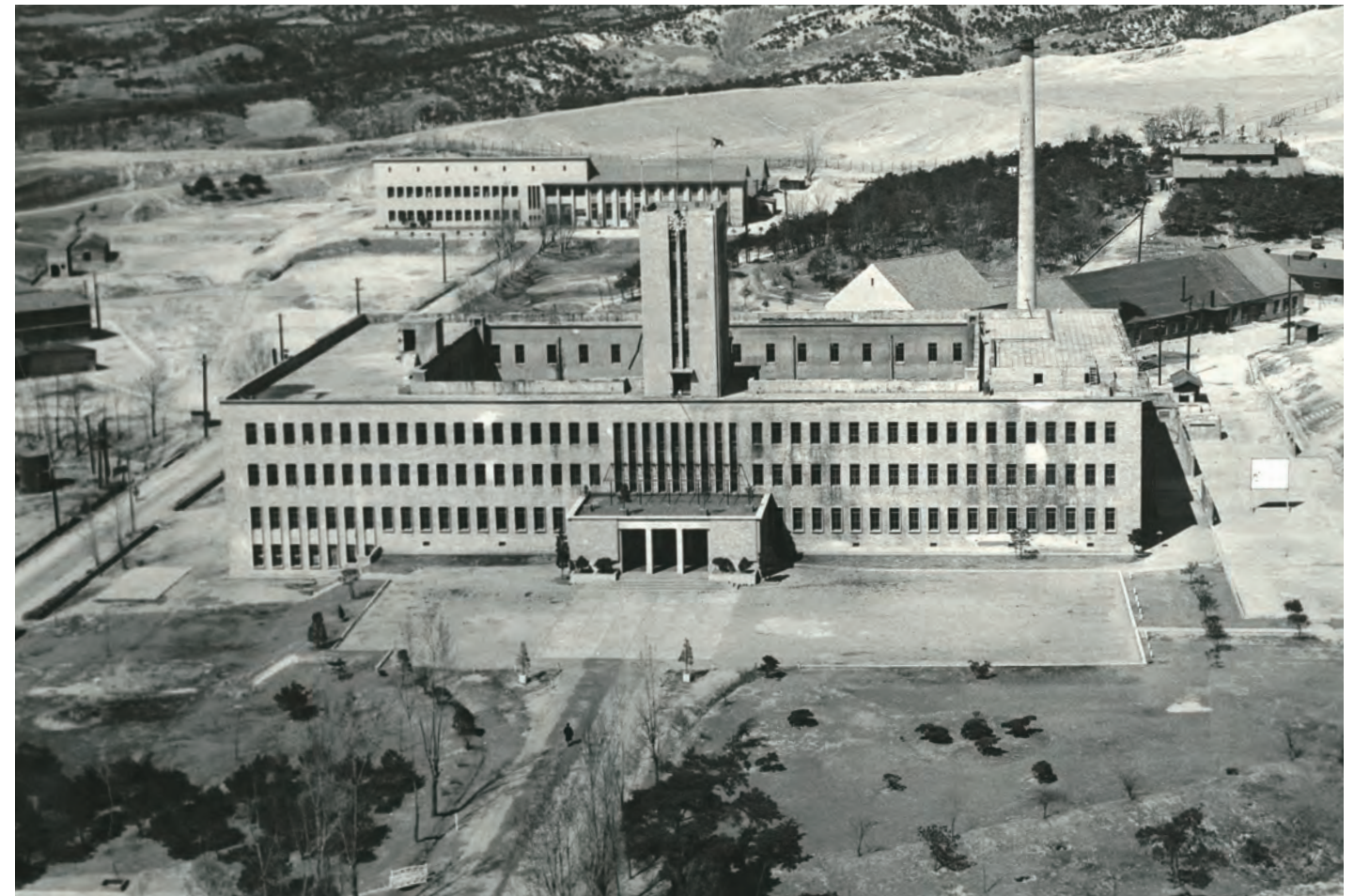
1950년대

공릉동 공과대학 캠퍼스

가운데 우뚝 선 건물이 1호관 그 앞 큰 길은 플라타너스 나무가 가득 심어져있던 '공대 숲'. 바로 뒤는 2호관, 오른쪽 뒤는 보일러실, 왼쪽 뒤는 4호관 기숙사와 '공대 늪'이다.

College of Engineering in Gongneung-dong

The main building (#1) is at the center, and the street in the foreground thick with plane trees was called Engineer's Forest. In the background, from left to right, are the dormitory, building 2, and boiler facility.





1973.2.26.
제27회 졸업식 27th graduation ceremony

관악 캠퍼스 기공식
GROUNDBREAKING CEREMONY
FOR GWANAK CAMPUS

1971.4.2
관악 캠퍼스 기공식에서 정희성
시인(당시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생)의
시를 낭독하는 성낙수 학생
(당시 국어국문학과 4학년 재학)

A student reads a
congratulatory poem for
the new campus

서울대학교 역사 사진집

1971년 4월 2일 서울대는 관악산 부지에서 대통령과 7천여 인사가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기공식을 가졌다. 관악 캠퍼스 건축은 단순히 큰 캠퍼스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종합대학으로 출범했지만 서울 경기 8개 지역으로 캠퍼스가 분산된 탓에 실질적으로 연합대학의 성격을 벗어나지 못했던 서울대학교가 진정한 종합대학으로 출발하는 시발점이었다.

On 1971 April 2, SNU held a grand ceremony announcing the initiation of the new campus construction. The ceremony was attended by SNU community members, the Korean President and some 7,000 Gwanak residents. The campus relocation was more than just moving to a larger campus; the university was being completely reorganized, merging eight campuses into three and restructuring its educational units.

To those who ask for the way -
I tell them, lift your eyes to Mount Gwanak,
to the cool forehead of its peaks.
The aura of wisdom wraps the feet
of its slopes and washes the old strata
of prehistoric granite.
Let the dew of Hermon fall upon Zion -
O the blessed drops upon the head!
O the origin of eternal life!

On this day we promised with aspirations -
Minds that had long been apart coming together.
Here we made new land
and lit wisdom in the soul:
Veritas Lux Mea.
O look at what the light reveals -
A most resolute path of a generation.
Despite injustices and wickedness
and the black hand of darkness covering eyes -
O the radiant wisdom that split
the crown of darkness!
Ah Seoul National,
You were wise at every dark turn.

Look at this path, paved by the spine -
A vision as hard and strong as bone.
This vision, ruminated deep within the heart,
now dwells in the marrow of the living
and opens this path from within.
O look at this solid path, paved by a determined
generation -
A seat of everlasting prowess.

That auspicious spirit, from the holy peak
to the feet of the mountain.
A university of the people,
Its heart teeming with mountain frost.
A university of the world that rises like fire.
Look at the abundant pillars of light
that cut through all darkness -
So that light follows light
Bone follows bone
and mountains call mountains to rise
and look at this path ablaze -
the eternal path of the eternal people.

This day was promised by the heart of the people.
So to those who ask where the path to our
nation lies,
Tell them to look to Mount Gwanak,
The great heritor of the people.
Ah Seoul National, your path will shine!
To whoever asks -
Tell them to lift their eyes
to Mount Gwanak.

그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이마가 시원한 봉우리
기슭이마다 어린 예지의 서기가
오랜 주라기의 지층을 씻어 내린다
혈문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듯이
관악의 이마에 흐르는 보배로운 기름이여
영원한 생명의 터전이여

겨레의 염원으로 기약한 이 날
헤어졌던 이마를 비로소 마주대고
여기 새로 땅을 열어
한 열의 슬기를 불 밝히니
'진리는 나의 빛'
이 불이 밝히는
오 한 세대의 확고한 길을 보아라
온갖 불의와 사악과
어둠의 검은 손이 눈을 가릴 때에도
그 어둠의 정수리를 가르며 빛나던 예지여
역사의 갈피마다 슬기롭던
아 우리 서울대학교

뼈 있는 자의 길을 보아라
뼈 있는 자가 남기는 이념의 단단한 뼈를 보아라
저마다 가슴 깊이 사려둔 이념은
오직 살아 있는 자의 골수에 깃드니
속으로 트이는 이 길을
오 위대한 세대의 확고한 길을 보아라
만년 웅비의 새 터전

이 영봉과 저 기슭에 어린 서기를
기슭에 서리담은 민족의 대학
불처럼 일어서는 세계의 대학
이 총만한 빛기둥을 보아라
온갖 어두움을 가르며
빛이 빛을 따르고
뼈가 뼈를 따르고
산이 산을 불러 일어서니
또한 타오르는 이 길을
영원한 세대의 확고한 길을 보아라

겨레의 뜻으로 기약한 이 날
누가 조국으로 가는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민족의 위대한 상속자
아 길이 빛날 서울대학교
타오르는 빛의 성전 에 있으니
누가 길을 묻거든
눈 들어 관악을 보게 하라

정희성(鄭喜成)

서울대학교 종합캠퍼스 기공식에 부쳐

여기 타오르는 빛의 성전이

Where the Temple of Light
Rises Like Fire

Translated by Ho Jung Annie Hwang
Revised by Professor Travis L. Smith

1968.8.28.

서울대 종합캠퍼스 부지로 태릉 일대가 선정되었다는 동아일보 기사

A news article announcing the final selection of the new campus site as the Taereung area where the College of Engineering had been located.



종합 캠퍼스 부지 선정
CAMPUS SITE SELECTION

1968년 공대가 있던 태릉 일대가 종합캠퍼스가 될 것이라는 계획이 공식 발표되었고, 캠퍼스 조감도까지 공개되었지만 부지가 협소하다는 단점이 부각되어 다음 해 전면 취소되었다.

1970년 5월 16일 정부는 관악산 기슭을 종합캠퍼스 부지로 선정하는데 그 때 밝힌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서울시 중심부로부터 15km 이내에 위치하고 있다.
2. 부지가 한강 남쪽에 있어서 한수 이남을 개발하려는 정부방침과 일치한다.
3. 관악부지는 학교시설지구가 약 350만m² (107만평)이고 인근에 농과대학 연습림 (514만평)과 인접하고 있어 광범위한 활동영역을 보유하고 있다.
4. 이 부지는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다.

- 1945-1975년 캠퍼스 배치계획의 특성에 관한 연구, 이영한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final selection of SNU's new campus location as Gwanak area. The major reasons were as follows:

1. The Gwanak area was within 15km from central Seoul
2. It supported the government's long-term plan to develop the southern part of the Han River.
3. It is large enough and close to the agricultural campus.
4. Its beautiful natural environment.

- LEE Young Han, A Study on Campus Master Plan between 1945-1975

이곳은 이미 강남 토지 붐이 일어나기 전부터 평당 7~8천 원 이상을 호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금을 들여 골프장을 건설한 동서관광주식회사는 쉽게 땅을 내놓으려 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부지 매입에 성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골프족의 향락보다는 대학촌 건설이 중요하다는 대통령 권유가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1972
관악 캠퍼스 부지로 선정된 '관악 골프장' 모습

The Gwanak Golf Club is selected as the new campus site.



관악 캠퍼스 건설
NEW CAMPUS CONSTRUCTION

1971.4.2.
박정희 대통령에게 관악캠퍼스 설계를 설명하는
이훈섭 서울대 건설본부장
SNU Director of Campus Construction
gives presentation to the Korean President



캠퍼스 종합화는 예정보다 지연되면서 3단계에 걸쳐 완성되었다.

1단계(1971-1974)
인문관, 사회관, 자연과학관, 도서관, 학생회관, 본부, 기숙사, 종합운동장

2단계(1974-1975)
약학관, 환경가정관, ROTC, 예능관, IMC관

3단계 (1976-1986)
공학관(1980), 박물관(1984), 문화관(1985), 체육관(1986)

Gwanak campus construction completed

1st Stage (1971-1974)
Humanities, Social Sciences, Natural Sciences, University Library, Administration, Dormitory, Stadium

2nd Stage (1974-1975)
Pharmacy, Environment, Home Economics, ROTC, Arts,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3rd Stage (1976-1986)
Engineering (1980), Museum (1984), Cultural Center (1985), Gymnasium (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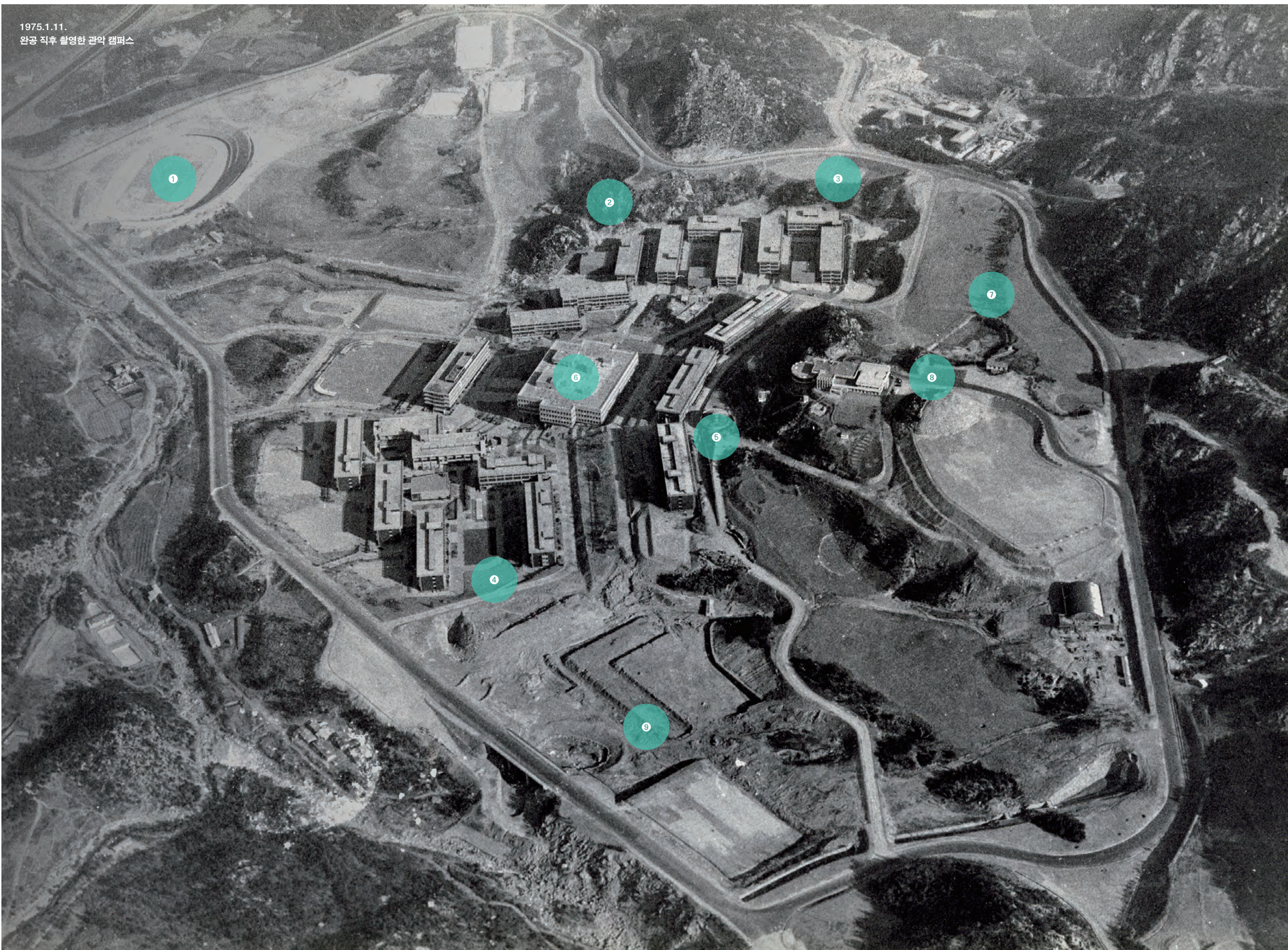


1975.1.1.
5-12동 (인문관, 사회과학관, 사범관)
건설 현장
Buildings 5 to 12 (Humanities, Social Sciences, and Education) under construction

관악캠퍼스 공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맡은 공과대학 응용과학연구소는 대학 인구를 2만 명으로 예견하였다. 골프장 18홀과 그 언저리 20만 평에 모든 교육, 연구, 행정 시설을 수용하고, 나머지 80만 평은 주변 녹지로 남겨 자연 속 캠퍼스를 구상했다. 캠퍼스가 수용 능력을 초과하면 주변 녹지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80만 평의 분계 영역을 뚫고 바깥으로 성장해 가도록 하였다. 그리고 차는 20만 평을 둘러싼 순환 도로로만 다니고 순환 도로 내부에서는 걸어 다니게 하였다. 마스터플랜의 마지막인 '대학 도시화 계획'에서는 대학의 지적 자원을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실리콘밸리를 염두에 두고 관악캠퍼스 인근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1975.1.11.
완공 직후 촬영한 관악 캠퍼스



최초의 관악 캠퍼스 FIRST DESIGN OF GWANAK CAMPUS

처음 관악캠퍼스에 준공된 건물은 총 24개였다. 인문관 8개(1~8동), 사범관 4개(9~12동), 약학관 2동(20~21동), 행정관(60동), 중앙도서관(62동), 온실(64동), 교수학습개발센터(61동), 학생회관(63동). 외곽의 교수회관(67)은 1967년부터 이미 식당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Gwanak campus had only 24 buildings in its first year: eight buildings for humanities, four for education, two for pharmacy, and six for natural sciences. Besides the college buildings, an administration building, a library, the 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and a student center. The faculty club had been built in 1967 as a restaurant.

관악산 산세를 최대한 살려 조성하였다. 관악산 정상에서 북서로 뻗어 내리는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계곡에는 수영장과 댐을 건설하였고 더 내려온 곳에는 천문대와 교수회관을 두었다. 주능선 좌우에 형성된 계곡에는 교육시설 4동을 한쪽이 트인 'ㄱ'자 형태로 배치하였으며, 각 동은 오버브리지로 연결하였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 ① 대운동장 Stadium
- ② 인문관 College of Humanities
- ③ 사범관 College of Education
- ④ 자연과학관 College of Natural Sciences
- ⑤ 약학관 College of Pharmacy
- ⑥ 중앙도서관 University Library
- ⑦ 버들골 Willow Park
- ⑧ 교수회관 Faculty Club
- ⑨ 공학관 터 Building lots for College of Engineering



1975.3.5
관악캠퍼스에서 열린 첫 입학식
First matriculation ceremony on Gwanak campus

관악 캠퍼스와의 첫 만남
FIRST DAY AT GWANAK



1975.3.14
관악 캠퍼스에서의 첫 등교 First day on Gwanak campus



1975.3.17
관악 캠퍼스로 첫 출근하는
교직원들
Staff members' first day on Gwanak campus

서울시는 서울대학교 이전에 따라 3개 버스노선을 새로이 마련했고 5개 노선을 연장, 서울대학교 앞까지 운행하는 버스 대수를 109대에서 295대로 크게 늘렸다.

- 1975년 3월 4일 경향신문

비오는 날 관악캠퍼스로 첫 출근하여 새 연구실에 짐을 풀어 대충 정리하고 책상 앞에 걸터앉아 남향창 밖을 내다본다. 정면에 웅장한 도서관 건물, 동쪽으로 00관, 서쪽엔 본부, 그 위에 깨끗한 현대건물들로 구획된 하늘. 낮선 시야가 아무래도 가슴에 안겨들지 않는다. 동승동에서 8시 출근버스, 오후 6시 20분 퇴근버스를 놓치지 않고 맞춰타는 새 관성을 붙이기 위하여 꽤 오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 1975.7.23. 동아일보 기고문 '관악산 정착기' 김용구 불문과 교수



1975.10.18.
자하연 앞 산책 Taking a walk around Jahayeon pond



1975.10.29.
완공된 첫 해의
관악 캠퍼스
- 국가기록원
Gwanak campus
completed



2015년 관악캠퍼스 Gwanak Campus in 2015

© JongOh Kim



2015.7.14.
서울대학교 관정도서관 University Library Kwanjeong
© JongOh Kim



1975
중앙도서관 열람실
University Library

서울대 개교 이래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공간은 단연 중앙도서관이다. 1930년 준공된 경성제국대학 부속 도서관 건물을 물려 받은 것이 최초의 도서관이었는데, 1946년 개교 당시 좌석 수는 100석이 채 되지 않았고 장서는 총 60만 권 정도였다. 2016년 현재 중앙도서관은 본관과 2015년 증축한 관정관을 합쳐 국내 최대 규모이며 장서 역시 500만권에 육박해 국내 대학 도서관 중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The university library has been greatly expanded over the last 70 years. At the time of its establishment, the library had less than 100 seats and 600,000 books. As of 2016, with the addition of Kwanjeong Library, the university library has about 5,000 seats and 5 million books, which makes it as the largest university library system in Korea in terms of book holdings and area.



2015
중앙도서관 관정관
'이성의 방'
Room of Reason,
University Library
Kwanjeong

사실 저는 가방끈이 짧습니다. 20대 초반에 지방의 전문대를 다니다 중퇴했기 때문에 최중졸업 학력은 고졸이겠지요. 미려하고 명칭한 제가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기부하려 합니다.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의 국립대학에 정채되고 국한되는 것을 명칭한 저는 원치 않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세계일류의 ~~공~~공건한 반열에 기립하길 명칭한 저는 원합니다.
그 한몫 비록 약소하겠지만 명칭한 저도 동참하고 싶습니다.
서울대학교! 언제나 깨어있으십시오. 그리고 비상(뛰는 소)하십시오.
당신들을 믿습니다.

— 명칭한 스물여덟 청년이 고대들에게 —

-서울대 신축 도서관 건립에 100만원을 기부한 주유소 아르바이트생 조모씨의 편지 중 (2012.3.7.)

새 교문을 짓다

MAIN GATE



1977.3.1.
교수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했던 3개의 교문 디자인
동승동 정문과 유사하게 지은 '가'안, 기념비 같은 구조의 '나'안, 불국사 축조기법으로 민족 고유의 느낌을 살렸다는 '다'안을 두고 학생회관에서 실시한 투표에서 나, 다 안으로 표가 모였지만 '서울대인의 합의'라고 부를만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SNU community members were asked to vote for a gate design among these three conventional designs.

서울대가 교문을 갖게 된 것은 관악 캠퍼스로 이전한 지 한참이 지난 1978년이었다. 교문 디자인을 두고 학내 투표까지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결국, 학내 교수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미술대학 강찬균 교수가 B안으로 제시했던 정장 모양의 교문 디자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면서 현재의 교문을 갖게 되었다.

SNU's main gate has been the most distinctive icon of the university since it was first built in 1978, three years after the relocation. The design for the new gate was hotly debated, and it was extremely difficult for the SNU community to reach a consensus. Even the design that the committee initially selected was widely rejected as "too conventional." The current design is that of Professor KANG Chan-Kyun (College of Fine Arts), who submitted it as an alternative after the initial design was dismissed. Professor KANG's design was ultimately adopted with the unanimous consent of the committee members.

가치를 환산하기 힘든 서울대학교의 상징이 된 교문이지만, 착공 당시에는 '일반적인 문의 특성을 무시한' '상징을 위한 상징이고' '효율성이 고려 안돼 모양은 불안정' 하다는 식으로 학생들의 맹 비난을 받았다.

- 대학신문(1977.8.22.) 기사에서 인터뷰 내용 재인용

1981.3.2.
정부 선전 플랫폼으로 활용되던 정문

The Chun Doo-hwan administration used the main gate as a platform for propaganda



45



2012년 정문
정문은 90년대에 잠시 개나리색으로 채색했다가 2006년 개교 60주년을 맞아 은회색으로 도장하고 밤에도 빛나도록 전등하고 감감해 보이던 철문은 걷어 내었다.
The main gate was colored yellow for a brief period in the 1990s, and later repainted silver-grey in 2006 to celebrate SNU's 60th anniversary.

44

SNU HISTORY IN PHOTOS



1978.2.21.
처음 세워진 교문
The main gate first revealed

정문은 서울대학교에서

관리 행정

Administration

1 설립 Establishment

- 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Ordinance to establish
Seoul National University
- 미네소타 프로젝트
Minnesota Project

2 입시 Admissions

- 대학 입학시험
Entrance examinations
- 대학의 팽창
Expansion of the
University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Seoul, Korea

ORDINANCE
NUMBER 102

22 August 1946

ESTABLISH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TION I. *Purpose.* The purpose of this ordinance is to provide for and make available to the people of Korea improved facilities for higher education, so that the youth of Korea may take advantage of the benefits and opportunities accruing therefrom, for the betterment of themselves as individuals and the Korean people as a nation in modern society.

SECTION II. *Method of Accomplishment of Objective.* The objective of this ordinance shall be achieved through the merger of certain existing educational facilities into a reorganized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rogressive amalgamation of additional educational facilities therein as necessary or desirable from time to time, the establishment therein of required additional colleges, schools and learned faculties, the recruitment of the best available teaching staff, the elimination of inefficiencies in present operations, the institution of economies in administration, and the evolution of a system of controls designed (by competitive examinations and otherwise) to raise the academic standards of the University to the point where they are equivalent to those of leading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throughout the world.

SECTION III. *Entrance Requirements.* Entrance requirements to the University shall be prescribed from time to time by the Board of Regents thereof; *provided*, that at no time and in no case shall any consideration of race, nationality, religion, sex, caste, or economic position or condition be made or deemed a requirement for admission to or attendance at the University or for the granting or withholding of any degree, diploma, certificate, scholarship, grant, emolument, honor or award by or in the University; *provided, however*, that the Regents may at any time, when the public interest of Korea requires, by written announcement establish quotas,

1946.8.22
최초의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군정법령 제102호)
미군정청 관보(Official Gazette)에서 재인용

The Ordinance of Establish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Ordinance Number 102,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

ORDINANCE TO ESTABLISH SEOUL
NATIONAL UNIVERSITY

1945년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되자, 1945년 11월에 100여명의 유지인사들로 구성된 "조선교육심의회"가 구 경성제국대학 건물을 활용하여 국립종합대학교를 세우도록 제안하였다. 미군정청 학무국에서 일하던 한국인 관리들이 이 제의에 호응하여 1946년 7월 13일 "국립서울대학교 안"을 발표했고, 8월 22일 "국립서울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령"이 공포되었다.

- 신용하 사회과학대학 명예교수, '서울대학교 60년'

After gaining independence from Japan in 1945, one hundred dignitaries of the National Committee on Educational Planning proposed opening a national university by making use of the Seoul University buildings. With the support of Korean officials working at the Department of Education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 proposal to establish "Seoul National University" was formally announced on July 13, 1946, and was formalized in an ordinance to establish Seoul National University.

- Professor SHIN Yong-ha, 60 Years of SNU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시행 1946.8.22.]
[군정법령 제102호, 1946.8.22., 제정]

제1조 (목적) 본 영은 조선국민에게 우수한 고등교육 시설을 제공하고 활용케 하여서 조선 청년으로 하여금 개인으로서의 조선인 자신과 또 현대사회의 국민으로서의 조선민민의 향상을 위하여 그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온갖 이익과 기회를 적의 이용케 함으로써 목적함.

제2조 (목적 달성의 방법) 본 영의 목적은 기존 교육 시설을 재편성되는 국립서울대학교에 합동하여 시시로 필요 우는 요망에 응하여 기 외 교육 시설을 점진적으로 흡수하고 기타 필요한 대학, 학부 급 연학 기관을 증설하며 우수한 교수 진용을 정비하고 현 학교 운영상의 결함을 제거하며 행정면에 있어 절약 정책을 수립하고 전 세계 일류 고등 교육 기관의 학술 수준에 필적할 만한 정도로 동 대학교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감리제도(경쟁 시험 급 기타 방법에 의한)를 창정함으로써 달성함.

제3조 (입학 자격 규정) 본 대학교 입학 자격 규정은 시시로 본 대학교 이사회가 제정함. 단, 여하한 시 우는 여하한 경우를 물론하고 그 종족, 국적, 종교, 성별, 가문(사회 계급) 우는 경제적 지위 혹은 조건 여하가 본 대학교 입학 급 출석의 허 불허, 본 대학교에 의하여 혹은 본 대학교 내에서 수여되는 학위 졸업장, 증명서, 장학금, 증여금, 급여, 명예 우는 상여 등의 부여를 결정하는 필수 조건이 되지 못함.

연이나 이사회는 조선의 공익이 필요로 인하는 시는 하시든지 문서에 의한 공포로써 본 대학교에 입학 우는 출석이 허용될 수 있는 조선 내에 정주하지 않는 자의 정원을 백분율 우는 수에 의하여 규정함을 득함.

1946.8.22.
국립서울대학교설립에관한법령

법제처 <http://www.law.go.kr>

Now the problem is, shall Korea have a credible national University or be forced to limit its offerings and enrollment, accept inferior personnel, close some of the units and become a small inferior school which will neither serve the educational needs of Korea nor take its place among the reputable institutions of higher learning. Is it necessary to sacrifice the University on the altar of the other activities of government?

한국은 이제 제대로 된 국립대학 하나를 가질 수 있을지 없을지 갈림길에 섰다. 지금 포기한다면, 한국에는 수준 낮은 작은 대학들만 남을 것이고, 그것은 결코 한국인들이 원하는 교육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다.

- Progress Report: Seoul National University 1 Jan. - 30 June 1947 by President Harry B. Ansted
국대안 파동 당시 Harry Bidwell Ansted 서울대학교 초대총장이 작성한 보고서中 (1947.8.4.)

미네소타 프로젝트
MINNESOTA PROJECT

미네소타 프로젝트(1954-1961)는 미국 정부의 전후 한국 원조 사업의 하나로 서울대학교가 교육 연구의 기틀을 잡는데 크게 기여했다.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교수진의 재교육을 포함한 인재 양성 계획이었다. 이 계획을 통해서 서울대학교 교수 218명이 미네소타 대학에 유학하였다. 이들 중 15명이 박사 학위를, 71명이 석사학위를 받았다. 수준 높은 미국 학문을 수입함으로써 뒤떨어진 학문 수준을 짧은 시간 동안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공과, 농과, 의과 등 이공 계통에 집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 과학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왔고, 이는 1960년대 한국 공업화의 기반이 되었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The Minnesota Project (1951-1961) was one of the US aid programs that played a key role in rebuild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Korean War. The most effective aspect of the project was the re-education program for SNU faculty members. A total of 218 SNU professors studied at the University of Minnesota: 15 received doctoral degrees and 71 master's degrees. This drastically improved the quality of education and research in Korean higher education. Focusing on funding science and engineering, Korea achieved great industrial development in the 1960s.

- 60 Years of SNU History



1954.9.5.
미네소타 대학과 기술원조협정 체결 가운데 최규남 총장, 오른쪽에 Orville Freeman 미네소타 주지사

Minnesota Project signed
CHOI Kyu-nam, 5th President of SNU (center), and Orville Freeman, 29th Governor of Minnesota (seated right), after signing the historic Minnesota Project agreement.



1956
미네소타대학 간호대학장에게 간호행정교육 수료증을 받고 있는 이귀향 서울의대 부속 고등간호학교 교장

The Head of the Nursing Department receives a certificate from the Dean of Nursing of the University of Minnesota.

Oakland Tribune, Thursday, Dec. 4, 1952

Korea Scientist At U.C. Forced To Return Home

BERKELEY, Dec. 4.—A Korean expert in forest genetics, conducting research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has been ordered home by the State Department, although his studies are not yet completed.

Dr. Sin Kyu Hyun, 40-year-old forestry professor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Korea at Seoul, is sailing for home December 12, despite strong pleas for a renewal



Dr. Sin Kyu Hyun

of his visa made by faculty members of the U.C. School of Forestry.

He is married and the father of four children, ranging in age from 5 to 15.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he was forced to flee the Korean university's forestry campus at Sawon with three other faculty members. The remaining three, unable to flee, were captured.

Again at Christmas time in 1950 Professor Hyun was caught in the onrush of North Korean soldiers and for a second time fled with his family to Pusan, where his family is now living in temporary quarters.

Early in 1951 the State Department offered him a grant to come

here to do research, with an eye to ultimate improvement of Korea's poor production of pine lumber. Dr. Hyun—whose name is pronounced "Shun"—spent his first nine months at the Institute of Forest Genetics in Placerville and since then has been on the Berkeley campus with the U.S. Forest Service and Range Experiment Station.

The slight Korean is a specialist in genetics—hybridization and mutation of seeds, resulting in improved timber strains. He has finished a portion of his work having to do with chemical mutations, but would like to con-

tinue his studies of physical mutations, particularly in connection with X-ray and nuclear bombardment of specimens.

"In Korea now we have nothing," he said. "Our specimens, our microscopes and even all our test tubes have been taken or are destroyed."

While he misses his family, he feels his place is here until his work is completed. "My wife keeps telling me I should stay here in her letters," Dr. Hyun explained. "She said there is nothing for me at home."

The University of Korea is being rebuilt after having been de-

stroyed by bombs, however, and Dr. Hyun will return there.

The State Department has notified him it cannot extend his visa any longer. He must be out of the United States by January 5 at the latest.



1955년에 미네소타 의대로 떠났어요. 연수하는 4년 동안 시카고도 못 가봤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강의실 가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놀지 않고 실험실에서 일했어요. 방학 동안에도요. 꼭 한번 몇 명이서 근처 엘로스톤 공원에 갔다 온 일이 있었어요.

- 이호왕 박사(의학과 54졸), 헌탄바이러스 발견

대학 입학시험 ENTRANCE EXAMINATIONS

60년대는 대학입시의 격변이 지금보다 심한 때였다. 40~50년대의 대학별 단독 입시를 정부가 주도해 국가고시로 바꾸었지만 1964년 다시 대학별 단독시험으로 돌아갔다. 1969년부터는 대학입학예비고사와 대학별고사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선화한다.

SNU's admissions policy has been changed many times. In the early years of its establishment, the university accepted students through its own entrance exams. The government later introduced national examinations standardized for all college applicants.

서울대 입시 변화

1945-1961
자율적인 서울대 단독 시험

1969-1980
예비고사와 대학별
본고사와 병행

1981-1987
대학별 시험 전면 폐지,
학력고사 전시험 후지원

1988-1993
학력고사 전시험 후시험

1994-1996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입,
대학별 본고사 부활

1998-2004
대학별고사 폐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내신,
논술시험 병행

2005-현재
지역균형선발제도
도입, 수시모집 전형 및
사회배려자 전형 확대



서울대학교 역사 사진집

1957.3.7.
대학별고사 답안지를 채점하는 교수들 Professors grade admissions exams.

서울대학교는 개교 후 입학제도를 정비해 나갔다. 이사회는 1947년 8월 '국립서울대학교입시규정'을 마련하여 입학 자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입학 지원 자격은 '당국의 인정을 받은 6년제 중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중등학교 졸업성적이 대학교에 진학하여 능히 최고학부의 교육을 계속할 수 있다고 인정된 자'였다.

-서울대학교 70년사

1952.4.14.
1952학년도 서울대학교
입학시험 문제.
영어 시험문제는 사범대학
영문학과 피천득 교수가
출제하였다.

Admission examination
questions written by
faculty members

入試問題

=(서울대학교)=

國語

1. 다음 글 읽고서, () 안에 漢字를 써 넣고: (1) (2) (3)의 뜻을 적으라. 青年文化人の覺悟 (4)를 百字以內로 記述하라.
文化的 民族性이 반드시 배하 () 主義의 傾向과 相同되지 않아야 할 것은 母論이나, 大韓의 思想觀念은 (1) 결핍하면 고부 () 그것과 完備 () 그것처럼 시의 () 합도 青年文化人の (2) 원각치 않은 別과 () 마 생각한다. 文化와 思想의 新舊는 그 取材의 新舊에 關지 않고 認識方法의 新舊에 關한 것이니 實例에도 新認識이 있는 것이요 (3) 古文化에도 新生命이 잠겨있는 것이다. (1) (2) (3) (4)

2. 아래에 적은 時點을 읽고 다음 물음에 대답하라.
(1) 동양사론 2차 1차 2차 시합고
(2) 할아버지 100살의 생일 (3) 화도 할아버지 (4) 꽃지위 (5) 두가 할아버지 (6) 배드나 말리나
(一) 「한글맞춤법」에 맞도록 고쳐쓰라
(二) 名詞 動詞 形容詞을 골라서 적으라
(三) 廢語는 그 部分을 解釋하라
(1) (2) (3) (4) (5) (6)

(四) 全文을 極히 簡單히 總括하라
(五) 作者 (특히 時代와 作品을 明記하라)?
3. 다음 글을 읽고 그 大意를 二三行以內로 說明한 후 底線을 그은 語句의 뜻을 풀이하라 (1) 風神이 이렇듯 가뭄이 끊어지면 (2) 금비석이 (3) 산만갈이 (4) 정전거리 (4) 다막술이 (5) 明月 같이 밝은 눈이 (5) 수관수가 (6) 雪山流水 같이 맑아 (7) 萬丈風濤 뛰노는 (8) 千里馬를 (8) 상모를 (9)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79, 180, 181, 182, 183, 184, 185, 186, 187, 188, 189, 19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431, 432, 433, 434, 435, 436, 437, 438, 439, 440, 441, 442, 443, 444, 445, 446, 447, 448, 449, 450, 451, 452, 453, 454, 455, 456, 457, 458, 459, 460, 461, 462, 463, 464, 465, 466, 467,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478, 479,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574, 575, 57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587, 588, 589, 590, 591, 592, 593, 594, 595, 596, 597, 598, 599, 600,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616,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655, 656, 657, 658, 659, 660, 661, 662, 663, 664, 665, 666, 667, 668, 669, 670, 671, 672, 673, 674, 675, 676, 677, 678, 679, 680, 681, 682, 683, 684, 685, 686, 687, 688, 689, 690, 691, 692, 693, 694, 695, 696, 697, 698, 699, 700,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713, 714, 715, 716, 717, 718,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729, 730, 731, 732, 733, 734, 735, 736, 737, 738, 739, 740, 741, 742, 743, 744, 745, 746, 747, 748, 749, 750, 751, 752, 753, 754, 755, 756, 757, 758, 759, 760, 761, 762, 763, 764, 765, 766, 767, 768, 769, 770, 771, 772, 773, 774, 775, 776, 777, 778, 779, 780,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794, 795, 796, 797, 798, 799, 800,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813, 814, 815, 816, 817, 818, 819, 820, 821, 822, 823, 824, 825, 826, 827, 828, 829, 830, 831, 832, 833, 834, 835, 836, 837, 838, 839, 840, 841, 842, 843, 844, 845, 846, 847, 848, 849, 850, 851, 852, 853, 854, 855, 856, 857, 858, 859, 860, 861, 862, 863, 864, 865, 866, 867, 868, 869, 870, 871, 872, 873, 874, 875, 876, 877, 878, 879, 880, 881, 882, 883, 884, 885, 886, 887, 888, 889, 890, 891, 892, 893, 894, 895, 896, 897, 898, 899, 90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英語

A. Translate the following into Korean.
1. In many parts of the world there are strange trees which are well worth learning about. were we to take a journey into some foreign countries and observe the trees which grow in the great forests we should find very much that would be interesting and instructive.
2. The sea is the sailor's home, and he knows it may be his grave, but he is not afraid. He likes to sing about his home on the ocean. when the ship rolls, he is rocked in his berth as if he were in a cradle. The waves are his pillows, and the rougher they are, the happier he is.
B. Fill in the blanks:
1. It is very kind () you to do so.
2. () is done can not be undone.
3. He stood aside () her to enter.
4. He not only made a promise, () kept it.
5. It was the battle of Waterloo () decided the fate of Europe.
C. Read this story carefully and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1-6) in English.
How to Get Rooms.
I was calling on a friend who had just put up a sign, "Rooms to Let. No Children." There was a knock at the door and a little boy of about five came in. Tucking his hat in his small hands, he said, "Mad. m, I saw your sign in the window and I was wondering if they were still vacant." He nroug a little while and continued, "I haven't any children. The e are just my aged parents and I'
Looking behind him, we saw a young couple with anxious but hopeful faces. They got the rooms.
"No Children" means "only for persons without children."
Questions
1. What sign did the friend put up?
2. Why did he put up the sign?
3. What had the boy in his hands?
4. How many children did the boy say he had?
5. Where were the boys parents?
6. How many persons were there altogether?
數學
(1) 二等邊三角形ABC의 頂點A를 지나 底邊BC에 垂선을 그으면 그 垂線의 長さを 구하라.
(2) 다음 數數分布表에서 算術平均値 中央値 最頻値를 구하라.
身長 cm
120.1 | 130.6 | 130.8 | 1.1.2 | 131.6 | 179.9
人數 2 | 3 | 5 | 3 | 4 | 3
(3) (1+1)5의 값을 구하라
(4) 다음 函數의 導數를 구하라
 $y = \log_{10} x + 3 + \tan^{-1} x + \cot x - 1$
(5) $\tan 45^\circ$ 의 近似値를 구하라 但 1=0.173rad
(6) 1kg의 물의 溫度 T°C에 대한 熱容量 Vc의 關係式은 다음과 같다
 $V = 1000 - 0.0576T + 0.00756T^2 - 0.000351T^3$
溫度上升率이 每分0.02°C라면 T=50일 때의 熱容量의 增加率은 얼마나
(7) $Y = s.n3x$ 의 第n階導數를 구하라
(8) 二圓 $x^2 + y^2 + 4x + 6y + c = 0$ $x^2 + y^2 + 6x - 2y + 5 = 0$ 이 直交하는 條件을 구하라
(9) $2y = x^3$, $2y = 7x - 6$ 으로 作인 面積을 구하라
(10) 同一平面上에 있거나 하는 二直線과 수직으로 交하는 直線을 구하라

60년대 서울대 입학시험장 모습

Cheer message banners for examinees in the 1960s



1960년대 서울대 학부
 입시 경쟁률은 5:1
 수준이었다.
 정원은 2,300명 정도였고
 지원자는 통상 12,000명
 정도였다.

-서울대학교 60년사도표

1981.3.2.
서울대 역사상 가장 많은 신입생이 입학했던
1981년 입학식

1981 saw the highest number of
students admitted in SNU's history



대학의 팽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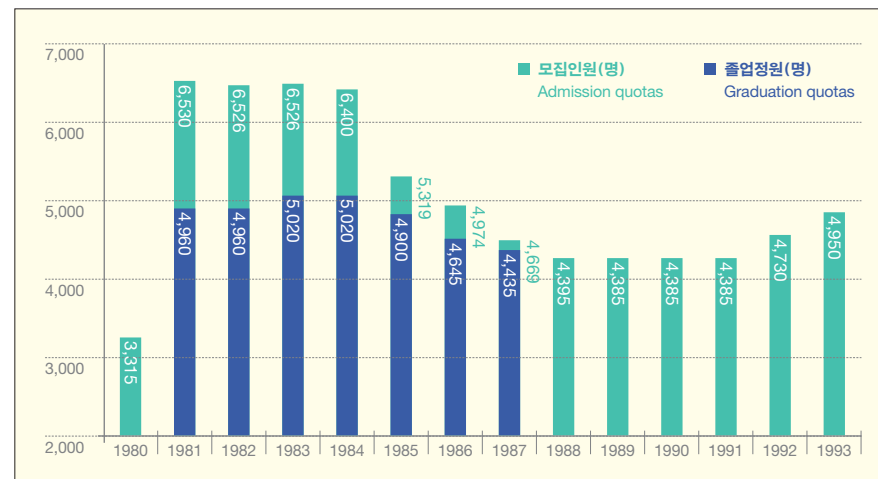
EXPANSION OF THE UNIVERSITY

1980년 신입생 3,315명을 선발했던 서울대는 정부의 '7.30 교육개혁조치'로 '졸업정원제'를 실시하고 1981년 6,530명을 입학시켰다. 신입생 증원은 시설 투자 없이 학생 수를 늘릴 수 있는 문과계열에 집중되어 인문대 360%, 경영대 325%, 법대 227%를 증원했다. 캠퍼스 과밀화를 야기했던 졸업 정원제는 1987년 최종 폐지되었다.

In 1980,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Graduation Quota System,' which was intended to admit more students and graduate less. SNU's admission quota increased 360% for the College of Humanities, 325% for the College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228% for the College of Law. The campus became severely crowded in the early 1980s because of this, and the system was scrapped in 1987.

1980-1993년 졸업정원과 모집인원

Graduation and admission quotas
1980-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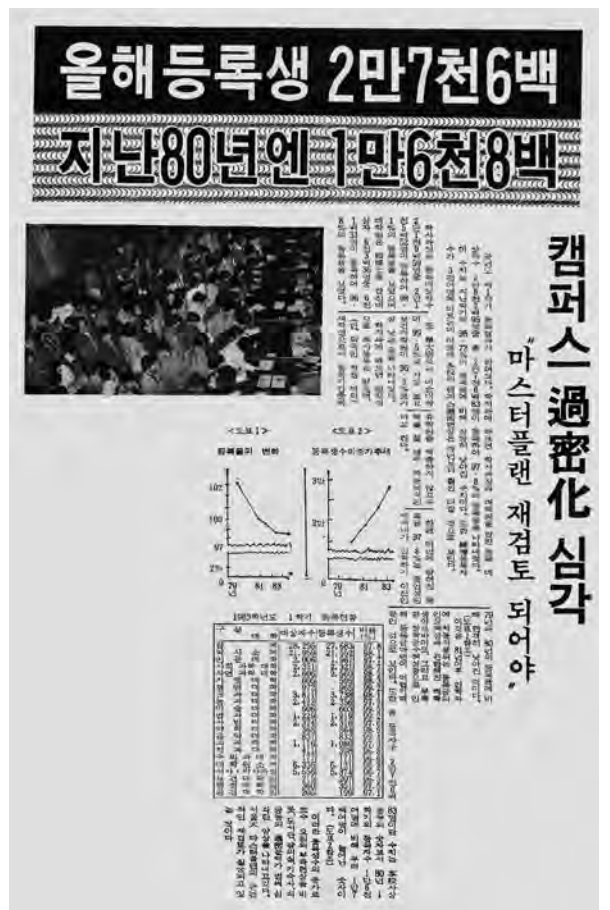


강의실에서, 도서관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심각한 과밀화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에서 서울대의 '줄서기문화'도 형성된다. 도서관에 자리잡기란 하늘의 별따기였다. 졸업 정원제 탈락이 최초로 적용되어 13명의 학생이 중도탈락한 1983년도에는 '요즘 너 안보여서 짤린 줄알았어'가 보편화된 말이었음을 보면 그것이 학생들에게 끼친 심적, 육체적 고통을 짐작할 수 있다. 캠퍼스에 꽂들어찬 선배, 동료들 속에 섞여도 신입생들은 유대감보다는 경쟁의식과 고립감을 더 느꼈다.

-서울대학교 60년사

1983.3.14.
서울대학교 대학신문 기사

A news article reports that the number of enrolled students had drastically increased to 27,600 in 1983 from 16,800 in 1980.



학생

Students

1 대학문화

Youth Culture

- 교복
University uniform
- 동승동 시절
Youth culture in the early days
- 70년대 대학문화
Campus culture in the 1970s
- 80년대 대학문화
Counterculture in the 1980s

2 학생운동

Student Movement

- 서울대학교 학생운동 1946-
Student movements since 1946
- 광주와 학생운동
Gwangju Uprising and SNU
- 4.19를 기억하다
Remembering the April 19 Revolution
- 박종철과 학생운동
Martyr PARK Jong-cheol



1966.11.8.

토론을 위해 동승동 대학본부 앞에 모인 학생들

Students gathered for a political discussion.





1955년 서울대 입시에서
여학생은 509명이 지원해
267명이 합격하고 그 중
101명이 이공계였다고
전한다. (대학신문 1955.4.18.)
1950년대 서울대 캠퍼스에는
약 1,000명 정도의
여학생들이 진학중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들은
별도의 '여학생회'를
만들어 활동하면서 여성
지식인의 정체성을 키워갔다.
1959년에는 최초로
여학생 (사범대학 박희진양,
현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명예교수)이
전체 수석을 차지해
대통령상을 받기도 한다.

1957.5.3.
'총여학생회'에 참석한 여학생들
Women's Student Association

교복
UNIVERSITY UNIFORM

1947년 3월 2일 개교 직후 혼란기에 서울대 교복이 최초로 제정되었다. 남학생은 감색, 여학생 감색 또는 흑색의 투피스 (여름에는 흰 블라우스에 스커트)를 입도록 하고 머리에는 베레모를 쓰게 했다. 당시 학교에서 교복 옷감으로 '해군사지(地)'를 1양분 7000환에 판매하고 따로 만들어 입게 했다.

The SNU uniform was a two-piece navy-colored suit with a beret. Students mostly wore them for formal events. The uniforms were first made in 1947, redesigned in 1965, and disappeared in the late 1970s when the Korean fashion industry began to flourish.

교복 착용은 필수가 아니었다. 개교 초기의 여학생들은 실제로 일상에서 치마저고리를 입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한다. 1970년대까지 공식 행사에 사용되다가 1970년대 후반부터 거의 사라졌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1956.12.20.
을지로 사범대학
입구에서 교복 입은
남학생

- 국가기록원

A student in
uniform in front
of the College
of Education in
Euljiro



1950년대
입학식장에서 교복 입은 신입생들

First-year students in uniform at the
matriculation ceremony



1970년대
교복 입은 여학생

- 대학신문

A student in uniform



1969.3.25.
교복을 입고 영부인을 맞이하는 정영사 학생들

Students in uniform greet First Lady at
their dormitory

동승동 시절

YOUTH CULTURE IN THE EARLY DAYS



1964.4.23.
동승동 「쌍과부집」에서 술을 마시는 학생들

- 경향신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SNU students drinking at the 'Two Widows' pub

쌍과부집은 문리과대학 앞 의과대학 뒷담에 기대어 판잣집으로 지은 가게로, 김말엽 노훈자 두 과부가 막걸리를 파는 곳이었다. 1960년대 전반 학생 운동이 고조되었을 때 “학생 운동의 역사는 쌍과부집에서 시작하여 ‘새세대사’(문리과대학 학생신문사)에서 끝난다.”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학생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며 이상을 공유하고 승화하던 장이었다. 대학로 무허가 판자촌에 세워져 있다가 1965년 6월 강제철거되었다.

- 대학신문 1965.6.7.

학림다방은 서울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 찻잔을 만져봤다고 할 정도로 당시의 명소였다. 1956년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다방으로 알려져 있으며, 문리과대학을 지칭하는 ‘학림(學林)’에서 이름을 따왔다. 80여명이 앉을 수 있었고 피아노가 한 대 있어 학생들이 자주 쳤다고 전한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1964년경
‘학림다방’에 모인 의과대학 학생들

- 1964년 의과대학 졸업앨범

SNU medical students gathered at Café Hakrim (Hakrim Dabang)



1975.4.7.
마이티 카드게임을 즐기는 학생들
 70~80년대 대학가를 휩쓸었던 놀이는 국산 카드게임 마이티. 마이티는 공격과 수비 양쪽으로 팀을 나누어 진행하는 두뇌형 카드 게임으로 대학별로 룰이 달라 서울대에는 '관악 5마', '관악 6마' 등의 버전이 있었다고 전한다. 서울대 이공계학생들의 하숙집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전해지나 확인되지 않는다.

Students playing 'Mighty'
 The 'Mighty' card game is thought to have been invented by SNU students, who enjoyed brain games. The Student Center in the 1970s was constantly filled with gamers.



1975.10.18.
관악에서의 첫 축제에 '맥주마시기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
 1960~1970년대 축제의 특징은 단과대학별로 독자적인 축제를 활성화하여 대학별 정체성을 형성해 갔다는 것이었다. 관악으로 이전한 후에는 전 대학 단위의 학생활동이 서서히 꾸러져 갔다.

Beer drinking competition at the first University Festival in Gwanak
 Each college had its own festival in the 1960s and 1970s. SNU held the first university-wide festival after moving to Gwanak.

캠퍼스의 잔디밭 등에서 활기를 고 있던 카드놀이가 관악으로 옮겨온 후 학생회관 바둑실 휴게실을 점거, 더욱 그 위세를 떨치고 있는 기분이다. 오전 11시만 되면 바둑실과 곳곳에는 카드족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자욱한 담배연기와 찢렁거리는 동전소리 속에서 바빠 카드를 돌리고 있는 군상들이 보인다. 이런 모습은 저녁 7시 캠퍼스가 완전히 어둠에 싸여도 계속된다. 지금 우리가 시간을 보내지 못해 카드를 소일할 수 있을 정도로 한가한 나라에 사는 대학생인가?

- 대학신문, '새 캠퍼스 이것이 문제이다'
 1975.3.31.

축제가 열리면 캠퍼스는 쌍쌍파티, 미스터서울대선발대회, 막걸리마시기 대회 등으로 온통 북적거렸다. 지금 보면 좀 퇴폐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는 아직 광주의 오월항쟁이 있기 전이었다.

- 신국조 명예교수

80년대 대학문화

COUNTERCULTURE IN THE 1980S

80년대는 학생운동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사회변혁을 위한 움직임에 참여하였다. 봄 가을에 열리던 '대동제'가 되었고, 5월에 열리던 학예제는 5.18 광주항쟁을 기념하는 '오월제'로 바뀌었다. 학생들은 왜곡된 역사와 독재 정권에 대한 비판의식을 공유하고 울분을 터트린 다음 민족문화로 승화하는 방식의 대학문화를 만들어 갔다.

In the 1980s, a great number of students came to engage in political issues and participate in demonstrations. The semi-annual university festival was recast as a *Dae-dongje*, 'Solidarity Festival', where students shared their pro-democratic political ideals and conducted cultural performances.



1984.10.23.
버들골에서 휴식을 취하는 학생들과
학내에 진입한 전경들

Riot police are on guard as students relax
Beolgeugol Park on campus

1988.10.27.
사회대 여학생 서울의
퀴즈 한마당

Students of the
College of Social
Sciences host a
feminism trivia contest



1984.5.15.
최루탄 가스를 참으며
등교하는 학생들

The smell of teargas
was an everyday
occurrence.



1980년대 대학문화의 가장 큰 변화는 학생 운동이 활성화하고 대중화하는 과정에서 운동권 문화가 급격히 확산된 점이다. 운동권 문화는 단순히 이들 운동권만의 문화를 의미하지 않았다. 체제에 대한 저항과 사회 변혁을 지향하는 대항 문화 전반을 의미했다. 운동권이든 비운동권이든 1980년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운동권 문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 서울대학교 60년사



1953 부산 임시캠퍼스 근처에서 단과대학별 깃발 아래 모여 휴전협정 반대 및 북진통일 쟁기 시위를 하는 학생들

SNU students against the signing of an armistice agreement take to the streets.



1962.6.8. 한미행정협정에 반대하는 학생들이 4.19.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를 열었다.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the student protest against the signing of the Status of Forces Agreement (SOFA) was the largest ever to that point.



1964.3.24. 한일회담에 반대하며 문리대 앞에서 이완용 화형식을 하는 서울대 학생들

- 경향신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Students protesting against the Korea-Japan talks of 1964 burn an effigy of YE Wanyong, the pro-Japanese minister who led the signing of the Japan-Korea Annexation Treaty in 1909.



1964.4.17. 학원 자율화를 요구하며 동승동 캠퍼스 교문을 나오는 학생들

Students leaving campus to take to the streets for the democratization of the university.



1964.4.17. 문리과대학 교정으로 진입하는 전경들

Riot police invading the old SNU campus.



1971.5.22. 최루탄 가스 가득한 세느강 - 경향신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The 'Seine River' filled with tear gas.

광주와 학생운동

GWANGJU UPRISING AND SNU



1984.5.18.
‘광주영령추모제’ 행렬

Students march on campus honoring victims of the May 18 Gwangju Uprising

1980년대 학생들은 광주 항쟁 당시 상황을 찍은 비디오를 돌려 보며 정권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반성, 그리고 운동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한마디로 ‘광주’는 1980년대 학생 운동의 상징이었다.

-서울대학교 60년사



1984.5.17.
오월제 축제가 한창이 되자 학생들은 ‘광주학살 5적 규탄’을 외치며 교문 앞에서 격렬한 시위를 벌였다.

On the Spring Festival day, students engaged in a fierce demonstration honoring victims of the May 18 Uprising.



1988.5.19.

고 조성만 학생(화학과 84학번)의 영결식. 광주 사태를 규탄하며 투신한 조성만 학생의 넋을 기리기 위해 도서관 앞에서 영결식을 지내고 시청 앞까지 상여를 이고 가서 노제를 지냈다.

- 대학신문

SNU students held a campus funeral for Joseph Seongman CHO (entering class of 1984, Chemistry) who had jumped off the Catholic Building demanding to bring the murderer of Gwangju Massacre to justice. Students marched from campus to the Seoul City Hall hand-carrying his coffin.

4.19를 기억하다

REMEMBERING THE APRIL 19 REVOLUTION

문리과대학이 4.19 정신을 간직하고자 1961년 4월 19일 건립한 4.19 기념탑은 관악 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초기에 공대 폭포 근처 외진 곳으로 옮겨졌다가 학생들의 항의로 2002년 4월 현재의 정문 부근으로 옮겨졌다. 기념탑에는 '상아탑은 진리의 탐구자요 정의의 수호자다. 비분 속에 폭발된 4월의 꺾기는 엄숙한 대의의 극명이요 정기의 절규이었다.'라는 고 김치호 학생의 추모비문이 새겨져 있다.

The April 19 Revolution Memorial Tower was first established in 1961, one year after the revolution. The tower bears an inscription: "The university seeks truth and defends justice." When relocated to Gwanak, it was moved to an isolated place, but was later moved to the center of the campus in April 2002.



1961.4.19. 동송동 캠퍼스에서 열린 4.19 기념탑 제막식
April 19 Revolution Memorial Tower unveiled
- 국가기록원

76

SNU HISTORY IN PHOTOS

총장배 마라톤 대회가 열리던 날 학생들은 외딴 곳에 있던 4.19 기념탑에서 4.19 희생정신을 기념하는 참배를 진행하고 있었다. 참배 진행 중 마라톤 행렬이 그곳을 지나게 되자 많은 학생들이 어깨동무를 한 채로 마라톤에 참가해 수백 명이 함께 순환도로를 달리는 장관을 연출하였다.

- 대학신문 1984.4.16.



1984.4.9. 4.19 기념탑 앞에서 단과대학별로 참배를 올리는 학생들
Students pay homage to victims at the April 19 Revolution Memorial Tower

2016.4.19. 정문 근처 4.19 공원에서 거행되는 기념식

Annual memorial ceremony held at the April 19 Revolution Park.



서울대학교 역사 사진집

77



1984.4.9. 4.19 참배 도중 마라톤 대회에 합세해 순환도로를 달리는 학생들

Students run a marathon on the campus beltway in commemoration of the April 19 Revolution.



1988.2.26.
학위복을 입고 시위하는 학생들 Students hold a placard stating “Jong-cheol! We cannot graduate without you.”
- 경향신문/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생들은 졸업식사를 읽는
총장에 등을 돌린 채 돌아앉아
운동가요 ‘친구2’ (안치환)를
부르기 시작했다.
“어두운 죽음의 시대, 내 친구는
굵은 눈물 붉은 피 흘리며
역사가 부른다..” 노래가
울려 퍼졌다. 문교부장관이
등단하자 ‘나가자’는 구호와 함께
‘타는 목마름으로’를 부르며
퇴장하였다. 전체 6천 6백여명중
4백여명만 남았다.

- 대학신문 1988.2.26.



2009
서울대학교 '민주화의 길' 박종철 흉상과
물고문 조각상
서울대학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희생한
학생 19명을 추모하는 1.2km의 둘레길을 조성하고
'민주화의 길'로 명명하였다. 사진은 1987년
고문으로 희생된 고 박종철 학생의 물고문을
형상화한 조각이다.

SNU 'Path of Democracy' and water torture sculpture
SNU created the 'Path of Democracy' to honor the sacrifices
that its students made for democracy. The sculpture depicts the
water torture of PARK Jong-cheol under police interrogation.

빛나는 이름

With Honor and
Gratitude

- 합격의 영광
Honor of acceptance
- 졸업의 영광
Honor of graduation
- 떠나며
Leaving SNU
- 대통령과 서울대
Korean presidents and SNU
- 명예박사
Honorary doctorates
- 개교기념식
Celebrating the anniversaries
- 선배의 이름으로
For future generations
- 우리들의 칭찬
Congratulations to the class of 2018

합격의 영광
HONOR OF ACCEPTANCE



1984.1.20.
대운동장에 붙은 합격자 방을 확인하는 사람들.
개교 이래 변함 없던 이 방식은 1993년부터 전화
통지로 바뀌었다.
- 연합뉴스

Prospective students and their families
gather in the stadium to look for their names
on the admissions list.

1965.2.15
서울대 수석합격생
언론 보도
-경향신문
A newspaper report
on the student who
received admission
to SNU with the
highest exam score.



우리는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학칙을 준수하며 학문과
인격 도야에 정진하고 서울대학교
학생으로서 긍지와 명예를 드높일
것을 선서합니다.

-서울대학교 입학선서



1975.3.5.
입학식에서 선서하는
당해 수석합격자 김승대군

The student with the highest admission exam score swears the
oath taken by incoming SNU students.

졸업의 영광
HONOR OF GRADUATION



1997.2.26.
1급 지체장애인 수석졸업자
고운산씨

51회 수석 졸업자인 고운산
씨가 학생 대표 답사를 읽고
있다. 고씨는 어릴 때 앓은
소아마비로 하반신 장애가
있었지만 남다른 열정으로
미술대학을 수석 졸업했다.

Valedictorian provides
inspiration

Valedictorian KO Unsan reads
his speech sitting on the floor.
Mr. Ko had post-polio paralysis
but graduated first in the
College of Fine Arts.

“세간에서는 고운산군의 장애문제가 화제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나 자신은 고군의 신체적 장애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 문제였다. 고통 속에서도 그는 늘 웃는
얼굴이었으며 시종일관 노력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다.
불편한 다리로 관악산 야외 스케치 수업까지 빠지지
않는 것을 보며 경이감을 느꼈다.”

- 지도교수 김병중 (미술대학 동양화과)

서울대학교 역사 사진집



1982.2.26.
대운동장에서 열린 학위수여식 Graduation ceremony held at the main stadium



2016.2.26.
체육관에서 열린 학위수여식 Graduation ceremony held at the gymnasium



1956.3.28.
제10회 졸업식이 끝나고
기념촬영하는 어떤 가족

- 국가기록원

After the 10th graduation
ceremony

서울대 학생이 었다는 드라이브는 한번도 잊은 적이 없을 뿐더러
세계를 떠돌며 평생을 보내는데에 근심이 되고 잊음을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술을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도 세계를 빛내는
한국인 서울대 학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작가 이우환 (미술대학 회화과 1956년 입학)



1975.8.31.
처음으로 관악에서 열린 29회 졸업식을 마치고 After the 29th graduation ceremony, which was the first held at Gwanak campus



2016.8.29.
제70회 후기 학위수여식 70th summer graduation ceremony



1958.3.28.
제12회 졸업식에서 최우수 학생에게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이승만 초대 대통령
- 국가기록원
President RHEE Syngman at the
12th graduation ceremony



1973.2.26.
22회 졸업식에서 성적 우수 졸업자에게
메달을 수여하는 박정희 대통령
President PARK Chung-hee at the
22nd graduation ceremony



현재까지도 성적 최우수
졸업생에게 수여되고 있는
은메달
직경 4센티미터에 은 14돈과
금도금이 된 메달로 현재
시세로 약 14만원 상당이다.
A silver medal has been
presented to summa cum
laude graduates by the
Korean President since the
first president Rhee



2000.2.26.
제54회 학위수여식에 참석한 김대중 대통령 내외 President KIM Dae-jung at the 54th graduation ceremony

대통령과 서울대
KOREAN PRESIDENTS AND SNU



1994.2.26.
제48회 학위수여식에서 시상하는
김영삼 대통령
President KIM Young-sam
at the 48th graduation
ceremony

이승만 대통령은 여러 차례 서울대 졸업식에 참석했다고 전한다. 성적 최우수자에게 주는 '대통령상'을 만든 것도 이승만 대통령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매년 서울대 졸업식에 참석해 최우수 졸업생에게 메달을 수여하다가 1974년 이후로는 안전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후에는 1994년 김영삼 대통령,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각 1회 졸업식에 참석하였다.

현직 대통령으로 6년만에 서울대 학위수여식을 찾은 김대중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시대의 변화를 예고했다. "이제 학벌이나 학력에 안주해서는 성공할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서울대 교문을 나서면서 서울대 출신임을 잇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1948.8.10.
서울대 명예박사 1호는 맥아더 장군, 2호는 하지 장군이었다.

SNU's first two honorary doctorates were given to US Army Generals Douglas E. MacArthur and John R. Hodge.

명예박사 HONORARY DOCTORATES

서울대는 70년 동안 100명이 넘는 국내외 인사들에게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해 왔다.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했거나 인류문화 향상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고 규정하였지만, 초창기에는 대부분 정부의 정치적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99년 김수환 추기경이 97호 명예박사학위 수여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때 관련 교수는 "서울대가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심사해 수여자를 선정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라고 설명했는데 그 후 실제로 넬슨 만델라 대통령, 아웅 산 수 지 여사, 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 등 세계 평화와 인류문명 발전에 기여했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수여 대상이 되었다.

In the early days, honorary doctorates were given to those chosen by the government for political reasons. After 1999, SNU began to give the honor to those who devoted their lives to world peace and humanities.

1995.7.6.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이 96번째 명예박사학위를 받고 있다.

Nelson Mandela receives the 96th honorary doctorate.



2005.10.14.
故 이종욱 전 WHO 사무총장(1945~2006)이 서울대 59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기념사를 하는 모습. 이후 2011년 109호 명예박사로 선정되었다.

The late LEE Jong-wook, former Director-General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received the 109th honorary doctorate after he had passed away in 2006. Here he attends the 59th anniversary of SNU, one year before his death.

1호
맥아더 극동사령관
General Douglas E. MacArthur
1948.8.10.

3호
이승만 대통령
President Syngman RHEE
1949.7.15.

96호
넬슨 만델라 남아프리카 대통령
President Nelson Mandela
1995.7.6.

97호
김수환 추기경
Cardinal Stephen
KIM Sou-hwan
1999.10.29.

104호
소설가 박완서
Writer PARK Wansuh
2006.5.17.

105호
반기문 UN 사무총장
UN Secretary-General
BAN Ki-moon
2008.7.3.

109호
고 이종욱 WHO 사무총장
WHO Director-General
LEE Jong-wook
2011.8.17.

111호
아웅 산 수 지 여사
Daw Aung San Suu Kyi
2013.2.1.



2013.2.1.
111번째 명예박사 아웅 산 수 지 여사가 기념 연설을 하고 있다.

Daw Aung San Suu Kyi receives the 111th honorary doctorate

“아무리 생각해도 명예박사학위는 어디 쓸데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학위가 자랑스럽지 않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살다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작은 기적처럼, 저 혼자만의 밀실에 두고 삶이 진부하고 지루해질 때마다 꺼내보고 위안을 삼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설가 박완서의 명예박사학위 수상 답사 중 (2006.5.17.)

개교기념식

CELEBRATING THE ANNIVERSARIES



1956.10.15.
개교 10주년 기념식 10th Anniversary



1966.10.15.
개교 20주년 기념식 20th Anniversary

92

SNU HISTORY IN PHOTOS



1996.5.31.
개교 50주년 기념 '관악인의 밤' 50th Anniversary



2006.10.14.
개교 60주년 기념 정문 채색 및 점등 60th Anniversary



1976.10.15.
개교 30주년 기념물 30th Anniversary



1986.10.15.
개교 40주년 기념식 40th Anniversary

서울대학교 역사 사진집

93

지난 70년간 서울대학교의 빛나는 발전과 늘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시대의 양심을 대변하고, 지성의 빛(Veritas Lux Mea)으로 나아갈 길을 밝혀왔습니다. 해방 직후의 혼란과 전쟁의 폐허 속에서는 물론 한국경제의 개발연대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이 서울대학교를 곳곳이 지원해주시고 격려해주셨기에 오늘의 서울대학교가 있게 했다고 믿습니다.

- 제25대 성낙인 총장의 개교 70주년 기념식사



2016.10.14.
개교 70주년 기념식을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북경대 총장(왼쪽) Presidents of SNU and Peking University at the 70th Anniversary

2010.9.30.

“신양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서울대 학생들이 200명이 신양 정석규 이사장(화학공학 52졸)의 기부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한 조각씩 그린 모자이크를 완성해 그에게 헌정했다.

200 SNU students dedicated a mosaic of Shinyang Suk Gyoo CHUNG in an appreciation of his generous donation.



94

선배의 이름으로

FOR FUTURE GENERATIONS

서울대 학생들은 자신들이 가장 즐겨 찾는 문화공간인 신양관 I, II, III 건물을 선물한 “신양 할아버지”(정석규 태성고무화학 창업자)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열었다.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그의 가치를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잠짓돈을 보낸 학생들이 600명. 그렇게 모인 1200만원은 관악구 저소득층에 전달되어 그들이 평생 이어갈 기부의 씨앗이 되었다.



2004년 완공
신양학술정보관 I Shinyang Engineer Hall



2007년 완공
신양학술정보관 II Shinyang Humanities Hall



2010년 완공
신양학술정보관 III Shinyang Social Sciences Hall

서울대학교 역사 사진집



SNU HISTORY IN PHOTOS

2011.10.20.

임광수 전 동창회장(기계공학과 52졸)이 동문들을 독려해 모은 기금으로 지은 'SNU 장학빌딩'. 빌딩 임대 수익으로 매년 장학금을 주는 진짜 '장학빌딩'이 2011년 탄생했다.

Former President of SNU Alumni Association LIM Kwang Soo raised almost 40 billion KRW to build the 'SNU Scholarship Building' to provide continuous scholarships to SNU students with its monthly revenue.

미래를 기다린 서울대인들이 모교와 후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시일반하여 373억 원이라는 기금을 모아 '장학빌딩'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제 안정적인 수익을 기반으로 후배들에게는 장학금을 모교 연구자들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광수 전 서울대 동창회장 (19대-24대)

95



2016.8.30.

'SNU 장학빌딩' 수익금으로 2016년 2학기 장학생 606명에게 17억원을 나누어 주는 서정화 동창회장(법학과 59졸)

President of SNU Alumni Association SHU Chung Hwa awards 606 students 1.7 billion KRW in scholarships made from the revenue of the SNU Scholarship Building.

연표 CHRONOLOGY

1895

前史

ORIGIN

근대 고등교육기관의 설립

대한제국이 최초의 근대식
고등교육기관들을 설치하여
우리나라 국립대학의
기원을 제공한 시기

- 1895 법관양성소 설립(법과대학),
한성사범학교 설립(사범대학)
- 1899 의학교 설립(의과대학)

Moder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established

The Korean Empire
establishes a modern higher
education system to promote
the nation's independence
and modernization.

- 1895 Judicial Training Institution
established
- Hanseong Normal School
established
- 1899 Medical School established

1950

戰爭/再建

WAR & RECONSTRUCTION

임시캠퍼스와 대학 재건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한국전쟁의 시련을 극복하고
전후 복구에 힘쓰는 시기

- 1951 부산에서 전시연합대학
편성으로 수업 운영
- 1953 본부 및 문리과대학 서울 복귀
- 1954 대학 재건을 위한 '미네소타 프로젝트'

Continuing education
during and after the
Korean War

Moving its campus to Busan,
SNU continues classes
during the War, and makes
efforts to reconstruct the
war-torn university.

- 1951 Classes relocated to Busan
- 1953 The College of Liberal Arts and
Sciences and Administration
Office returned to Seoul
- 1954 Minnesota Project for the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1946

開校

FOUNDATION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설립

해방된 민족을 이끌어
갈 인재 양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국립대학으로 설립



1907
의학교 강의실

A classroom of the
Medical School

- 1946 국립서울대학교
개교(문리과대학,
공과대학,
농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상과대학,
예술대학, 의과대학,
치과대학, 대학원)

Founded as the first
national university

The government
establishes SNU to educate
the leaders of the newly
independent nation.

- 1946 Seoul National University
opened with 9 Colleges and
1 Graduate School

1960

體系化

DEVELOPMENT

양적 성장과
대학운영의 체계화

사회발전을 이끌어 가면서
민족의 대학으로 자리잡은 시기

- 1961 4월 학기제에서
3월 학기제로 변경
- 1970 새 캠퍼스 통합 이전 부지로 관악산
서북 지역
1백만 평을 공식 선정

University system
expanded and organized

The number of faculty and
students is vastly increased.

- 1961 Academic year changed from
April - March to March - February
- 1970 3.3 km² land in Gwanak selected
for the new campus site

1975

綜合化

RELOCATION

관악캠퍼스로 통합 이전

각지에 분산되어 있던 캠퍼스를
관악캠퍼스와 연건외 의화계 캠퍼스,
수원의 농학계 캠퍼스로 통합하여
종합대학의 위상을 갖춘 시기

- 1975 관악캠퍼스에서 첫 입학식
- 1980 공과대학의 관악캠퍼스 이전으로
캠퍼스 종합화 완료

Centralizing the
campus in Gwanak

SNU merges its multiple
campuses into three main
locations: Gwanak,
Yeongeon and Suwon.

- 1975 First matriculation ceremony on
Gwanak campus
- 1980 College of Engineering relocated
to Gwanak campus completing
the first stage of relocation.

1995

國際化

INTERNATIONALIZATION

세계 수준의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

민족의 대학을 넘어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시기

- 2002 SCI 논문 발표 수 세계 30위 권 진입
- 2003 농업생명과학대학 관악캠퍼스로 이전
- 2005 지역균형선발전형 시행

Conducting global research

SNU becomes renowned
internationally as a top research
university.

- 2002 Placed among top 30 in the world in
terms of SCI paper publications
- 2003 Colleges of Veterinary Medicine and
Agriculture & Life Sciences relocated
from Suwon campus to Gwanak
campus
- 2005 Undergraduate admissions policy
changed to ensure regional diversity



2008
국제하계강좌 수업
International
Summer
Institute class

1987

民主化

DEMOCRATIZATION

정치 민주화의 흐름 속에
대학 민주화 달성

서울대학교가 배출한 인재들이
정치 민주화를 달성하고, 학내에서는
학원 민주화를 이루는 시기

- 1987 6월 민주항쟁 참여 및 학원 자율화 획득
- 1991 첫 교수 직선제를 통해 김종은 총장 취임

Moving toward Democracy

The SNU community contributes to
the democratization of the nation and
educational system.

- 1987 SNU community members initiated the
June Struggle for Democracy
- 1991 Professor KIM Chong-un elected as
SNU's president through the first direct
election involving all faculty members



2010
창의연구실습
수업
Creative
Research
Practice
class

2012

自律化

AUTONOMY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적 지위 전환

정부 직속의 국가기관에서
자율성을 가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세계 선도 대학으로
도약하는 시기

- 2011 '국립대학법인'으로 법적 지위 전환
- 2014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완공
- 2015 관정도서관 개관

Incorporated as an
independently run national
university

Seoul National University
changes its legal status from a
government organization to an
incorporated university by law.

- 2011 Incorporated
- 2014 SNU PyeongChang campus, a bio-
technology complex opened
- 2015 Kwanjeong Library opened

서울대학교 역사
사진집

SNU HISTORY
IN PHOTOS

서울대 사람들 1946-2016

발행	서울대학교
발행인	성낙인
편집인	이근관
발행일	2018년 2월
발행처	서울대학교 기획처 홍보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02.880.2555 www.snu.ac.kr
디자인·제작	(주)디자인인트로 Tel 02.2285.0789 www.gointro.com

© 2018 서울대학교

이 도록의 저작권은 서울대학교에 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사진과 글의 무단게재를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Seoul National University